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22강, 고린도전서 8:1-11:1,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고린도전서 9장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고린도전서 8.1-11.1, 우상에게 제사된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글쎄요, 고린도전서 8-10장에 대한 대화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121페이지에 있고, 이것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8장과 9-13절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문제에 관한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후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 7-8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조심하십시오. NRSV가 9절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면, NIV가 하는 것처럼 문단을 구분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어떻게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흥미롭군요. 저는 NIV가 여기에서 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그 지점에서 권리라는 단어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로 알려진 이 공동체를 지칭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고린도전서의 앞 장에서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룹에 적용되는 용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우리가 이 갈등의 일부를 이해하고 연회나 사교 모임을 위해 성전에 가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미아 게임에서 제국의 승배에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맥락이 그들을 끌어들이고 바울은 그들이 그것에 참여할 권리와 지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참여, 그 지위가 아직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을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연합으로 인해 우상과 함께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강자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의향이 없었고, 그들은 곤경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폴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을 테지만, 폴은 이제 더 큰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당신의 사회적 지위라는 이유만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3C 개요에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자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글썄요, 저는 그것이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당신이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리, exousia ,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많은 문화적 뉘앙스가 필요합니다. 권리는 단순한 자유나 자유가 아닙니다.

지위는 권리 문제에 관여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질 권리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와 자유지만, 원래 맥락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유를 더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실제로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엘리트주의를 희생하도록 당신을 되돌립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이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당신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사원에서 먹는 것을 보고, 저는 그 가정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사업계급의 접근 방식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상에게 제사된 것을 먹을 용기를 얻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동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세계관으로 그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메커니즘과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기독교 군인 센터의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잡고 당구대로 끌고 가서 큐 스틱을 내 손에 쥐어주고, 이 당구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구공을 부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럴 거면, 그럴 거면, 제가 풀과 당구에 대해 알고 있는 맥락이 그런 거라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글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올바른 종류의 윤리로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식과 공동체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엘리트주의와 그에 붙은 모든 것, 그들의 권력, 돈, 명예, 명예의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갑자기 예전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충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신교와 반우상숭배는 초기 기독교 설교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약한 형제를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습니다.

이제 121페이지 3c 1d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강한 사람은 책임의 부담을 지도록 권고받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종하여 성숙하게 만들지 않고도 공동체를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이 쓴 Shared Praxis라는 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같은 페이지에 놓을 수 있을까요? 폴이 여기서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코린트 공동체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들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데 이기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엘리트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재빨리 그것을 붙잡았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역 리더십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의 이 영역을 섬세하고 진실되게 다루는데 관여합니다. 이 영역에서의 실패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그들의 실패는 양심의 진술로 포착됩니다. 이제 양심에 대한 전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마 세 개의 강의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과 같을 겁니다. 양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여담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증인이다. 그 용어에 밑줄을 긋는다. 그 용어를 강조한다.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당신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성찰 능력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당신이 인식하고 적용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정의를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FF 브루스와 그의 양심에 대한 대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인용문을 넣지 않았지만, 그것을 각색하여 끊임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말 중 일부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증인입니다. 양심은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성찰을 위한 창조된 능력의 한 측면입니다. 증인이자 판사가 아닙니다. 양심이 판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것은 증인입니다. 그것은 무언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적용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증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머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작은 모델, 우리의 머리 모델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표시되고, 여기 존재하는 격자에 따라 의미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썄요, 양심은 이 격자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격자는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결한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고 적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데이터를 실행하는 그리드입니다. 음, 양심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맞을까요? 양심은 거기에 있는 작은 경찰 무리와 같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올 때, 세계관과 가치 체계가 좋아하지 않는 의미를 쫓아내려고 하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니, 그건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야"라고 느낄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직장 상황에 처해 있고, 당신이 감독자이고, 당신의 상급 감독자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니, 그건 그 사람을 학대하는 거야"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해고될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가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양심이 당신의 지식과 가치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운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멈추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운영하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운영하지 않는지? 당구와 당구를 치는 것에 대한 제 예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삼촌들과 함께 당구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계관을 발전시켰습니다. 당구장은 도박을 하는 곳이고, 술을 마시는 곳이고, 떠들썩하게 놀 수 있는 곳입니다. 나빴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풀 홀이 기독교인이 살고 활동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풀 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서비스 센터 에 갔고, 그곳에는 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갔고, 풀 빌리어드에 대한 데이터는 금지였습니다.

나는 그것에 그 의미를 부여했다. 알았어. 글썄, 나는 그것이 당구대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이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교육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맥락에서 같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맥락을 그 안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괴롭혔지만, 다시 말해, 제 양심은 군인 센터의 그 당구대에 대해 계속해서 저를 캐물었습니다. 그것이 제 세계관과 가치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나쁘죠. 하지만 저는 제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교육하면서 양심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메커니즘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교육했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이해를 흡수하고 소유하게 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내 양심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에는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풀은 양심을 소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너무 나쁘게 가르쳐서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양심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양심은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가이드로 삼으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 것입니다. 세계관과 가치를 가이드로 삼으세요.

양심은 당신이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재교육을 받을 때, 그것이 개종인 것입니다. 개종은 거대한 재교육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겪을 때, 당신은 양심과 긴장을 겪습니다.

왜? 당신의 양심이 옛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새로운 시스템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소유하게 되면, 당신의 양심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양심은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을 죽이고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교회를 유대교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마스쿠스 길에서 구원받고, 개종하고, 마음을 바꾸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은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양심이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왜?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에 교회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양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이 전환과 과정에서 조정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강자는 아마도 꽤 빨리 큰 도약을 했을 겁니다. 왜? 글썄요,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든 아니든 그들에게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업 회의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회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사회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우상에 대한 전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엘리트의 행동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맺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가 조정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들은 점프를 하려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은 마음을 지금 있는 그대로, 양심을 지금 있는 그대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조정하고 전환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약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이나 다른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트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옳았습니다. 엘리트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이나 그 무엇에 대한 문제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소유했다면, 그들은 멈추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당신은 여전히 이 이유로 틀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그것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약합니다. 약한 것은 그들의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증언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무언가를 증언합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개념이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꽤 큰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철학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거리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 양심은 저를 괴롭히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옳은지 그른지입니다. 좋은지, 더 나은지, 가장 좋은지? 저는 당신의 양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옳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악한 몇몇 저명한 기독교인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방식을 당신이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문적인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한 것처럼 자신들이 신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이드입니다.

왜? 그들이 운영하는 나쁜 세계관과 가치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양심은 판사가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가이드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에 맞게 여러분을 유지하는 신이 창조한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언가가 변하면 로마인에 따르면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양심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소유한 것을 따르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면, 양심은 당신이 주저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당신을 당신이 있던 곳으로 바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확신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붐, 양심이 배에 댕습니다. 왜? 그것이 세계관과 가치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 양심도 따라갑니다 . 그러므로 양심은 결코 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은유를 이해하세요.

그들은 담대해져서 변화된 지각적 설정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울이 9절에서 13절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담대하게 합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다룰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용어는 사실 교화하거나 쌓는다는 뜻이에요.

8:1에서 사랑은 세워진다. 바울은 강자가 약자를 강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10절과 11절에서 그들을 파괴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양심이 약하다면, 약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여전히 오래된 세계관에 따라 사는 양심은 당신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우상에게 제사된 것을 먹을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속으로 끔찍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관적 가치와 양심의 과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전환시키고 싶어합니다 . 이제, 당신이 사역 리더이고 회중이 있다면, 당신은 한 번에 이 모든 혼란을 겪습니다.

당신은 강하거나 약한 회중을 갖는 특권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한 번에 모든 혼란을 겪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회중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변화되었습니다.

회중으로서 우리는 그 변화의 내용, 세계관, 가치 체계를 통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약한 형제 자매는 여러분의 지식에 의해 파괴됩니다.

무엇이 파괴되는가? 신이 인간이 삶을 살고 결정을 내릴 때 통제하기 위해 만든 세계관, 가치 체계, 양심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파괴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삶을 완전히 영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모든 마차에 올라타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에 있어서 매우, 매우 섬세하고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파괴되는 것일까요? 영원한 상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별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1 페이지 하단.

그들은 분별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재확인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상처받은 양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양심을 실체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건 알아요. 아니, 그는 양심을 기능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갈등 때문에 영망이 된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끕니다. 11:9에서 이 용어의 사용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분별력을 언급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파괴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813에서 stumble의 이중 사용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재교육에 선행할 때 분별 과정은 파괴됩니다. 122페이지 상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이 재교육에 선행하면 분별 과정이 파괴됩니다. 고린도에서는 지식과 무지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들어와서 그들의 지식을 지지했지만, 괜찮은 일을 하더라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13절이 꽤 강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습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것이 내 형제 자매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를 어기는 것이고, 당신의 양심은 그것에 대해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하는 대신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전환적 변화를 겪고 괜찮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신이 주신 과정을 파괴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겪고 있던 내면의 사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적어도 13절에서 놀랍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입니다. 그들은 게으른 음식 문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관행을 반박하는데, 우리는 방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9장에 나오는 바울 자신의 예입니다. 전통적인 견해가 할 부정적인 예에서 그들의 관행을 반박합니다

그들의 관행에 대한 반박은 10장 후반에 나오는 주님의 만찬의 사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처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견해 사이의 중요한 요점은 실제로 우리가 방금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8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8장 전체와 비교했을 때, 특히 4장부터 13장까지는, 하지만 전체 장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안을 읽어보면, 제가 말하는 것과 전통적인 관점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동기의 뉘앙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한 문학적 방법을 만드는 것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문학적 방법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전통적인 학술적 관점을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9장에서 그 방식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모임의 문제와 그것이 로마 고린도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 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와 그의 코린토스 여행과 코린토스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아마 100년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가 1세기에 전성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건설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걸어가는데,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우상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위한 사회적 지위와 연회가 있습니다.

글쎄, 나쁘네요. 10장은 거기에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 육류 시장 등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가 육류 시장에서 유대인에게 코셔 고기에 대한 양보를 철회한 이후로 그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기에서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의 일부일 것입니다. 갑자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기의 전체 공급원이 이전에는 가능했음에도 모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제 폴은 그것을, 학대를, 그리고 지식의 부족을 다루어야 합니다. 폴은 이 토론에서 어느 쪽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9장, 사도적 권리, 자유, 그리고 공동체 윤리. 이 장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8, 9장에서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엘리트에게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명명법에 약간의 변화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어쩌면 바울이 여기서 뭔가를 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유민으로 태어난 로마 시민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때때로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다른 경우에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자유민입니다. 그는 심지어 로마 군인을 그 근거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엘리트에게 당신이 결국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뉘앙스로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우리 나머지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은 단지 약간의 상상력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빈칸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롭지 않은가요? 내가 사도가 아닌가?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나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는 극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은사 문제를 다룰 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열거하고 두음을 반복하는 것은 사도직에 대한 그의 증거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1세기에는 온갖 종류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사도로 묘사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12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는 떠났다. 마티아스가 들어왔다. 바울은 때가 되지 않아 태어난 사도로 불렸다.

15장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9-1에서 페달을 밟고 기록에 남깁니다. "이봐, 나는 엘리트야. 나는 사도야."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인장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위해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권리.

그리고 그것은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진 선택권으로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연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적 권리 행사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면서 9장에서 권리를 제쳐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의 성찰은 두 가지입니다. 권리는 권리고 정보에 입각한 제쳐놓음만이 유효합니다.

따로 떼어놓기 위한 따로 떼어놓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는 우리가 살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권리를 올바르게 처리한다면 괜찮습니다. 풀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권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역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린도에서 1세기의 우리 자리에서 돌아가서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면, 9장이 두 장 사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를 다룹니다. 아시다시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습니다.

뽀, 9장과 10장의 일부가 온다. 그리고 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로 돌아간다. 글썄, 이건 덧붙인 말이다.

그는 토끼를 쫓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 논쟁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 물어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알려진 우상 고기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관점. 둘 다 내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9장의 내용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9장의 내용이 각 관점의 논제에 어떻게 부합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물론 렌즈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도적 권리에 대한 바울의 제한은 강한 사람, 심지어 특권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울의 제한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그의 주장의 연속입니다.

내가 제한하라고 했잖아. 내가 제한했어. 탑승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우 겸손한 뉘앙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성서 학문에서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을 때, 개인 대우는 당신이 원한다면 사람에게 지위와 길드에 대한 존재감을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학자들이여, 그것은 도전이 되고, 많은 견해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견해는 그 질문에 답하기에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의 배척에 맞서 사도직을 옹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인들이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1절과 2절에서 변증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이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안다는 근거로 진행합니다.

9:1은 제가 언급했듯이 12장에서 14장에 걸쳐 일어날 사도적 논쟁에서 결정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사도라고 말하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계승과 1세기의 다른 사도들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20과 같은 독특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지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강력한 암시적 증거가 있지만, 그것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12장에서 14장까지 거기에 도달하면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권리에 대한 묘사. 이것은 바울이 희생하는 방법을 지적한 것 외에도 다른 이유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사역에서 때때로 유료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그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전만큼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급을 올라가면서, 저는 때때로 유료 사역에 문제가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지갑과 마음의 선함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병원 방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한 병원까지는 약 50~80마일, 다른 병원까지는 50마일, 다른 병원까지는 30마일이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저를 돕기 위해 마일리지를 지불하지 않을 건가요? 저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는 유료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는 그런 사고방식을 훼손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훌륭한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구절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지만 맥락상, 그것은 바울이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당신이 사역을 어떻게 완수하는지와 관련하여 보상과 무보상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상과 무보상은 당신이 행한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 비슷합니다.

9.1에서 저와 함께 이것을 알아차리실 겁니다. 글썄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9.1에서 6까지는 수사적 질문의 초기 시리즈입니다. 3절은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변명하는 것입니다.

엑소시아 가 없나요 ? 그것은 권위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강한 용어입니다. 그것은 이전 장에서 엘리트에 대해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도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설이나 예의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나요? 우리는 믿는 아내를 취할 권리가 없나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를 둔 사도들이 있었나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요. 그리고 주님의 형제와 케바도요. 글썄요, 교황은 한 명 있었는데,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면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걸까? 오, 궁금하네요.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는 일에 돈을 받는다고 비난했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7절 이하에서 목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한 일련의 비유를 계속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인으로 복무합니까?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를 먹지 않습니까? 누가 양 떼를 돌보고 젖을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단지 인간의 권위에 따라 말합니까?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소에 관한 것입니까? 그분은 분명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쟁기질하고 타작하는 사람은 추수에 참여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씨를 뿌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 추수를 거두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것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2절에서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어 '옳음'은 이 앞 장들에서, 특히 여기 9장에서 반복됩니다. 우리에게 이 권리가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엘리트가 아닌가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현실과 진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기보다는 무엇이든 참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서 음식을 얻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 바쳐진 것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서 생계를 얻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권리,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기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용한 유추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련의 주장을 요구합니다. 7절에서 인간의 유추에서 나온 주장, 8~10절에서 성경에서 나온 주장, 11~12절에서 상식에서 나온 주장, 13절에서 실제 관행에서 나온 주장, 14절에서 제가 읽지 못한 도미니컬 전통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좋아요, 제 눈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구절인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와우. 그러니 이 글을 맥락에서 분리하지 마세요.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갖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의 다음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역 리더이거나 전문 사역을 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이고,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좋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는 너무 빨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자발적인 권리의 쇠퇴. 이것을 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서사와 같으며, 저는 그것을 읽고 강조함으로써 당신을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매우 잘 굴복합니다.

15절. 나는 이 권리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지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해 주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나는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서 이 자랑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올 요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조금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썄요, 어떤 근거로? 글썄요,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파하도록 강요받았으니,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무슨 뜻인가? 그는 이것을 의미한다.

그게 그의 일이야. 그게 신이 그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이야. 그리고 그는 그걸 해야 해.

그는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고, 그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데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 문화에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영웅주의를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생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모두가 승자이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승자가 된다면, 그것이 초등학교로 내려가서, 경주를 하게 되면, 모두가 리본을 받게 되고, 상위 3위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일상 문화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면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된 것을 받습니다. 우리 문화가 스스로에 대한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감을 잃었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글쎄요, 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자랑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다면, 군에서 말했듯이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야 합니다. 노르망디에 갔다고 해서 메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리본을 받습니다. 반에서 1등을 차지한 것에 대한 메달을 받습니다. 해변 착륙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 심지어 당신 자신의 삶의 지점까지 말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메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야 합니다.

상을 받기 전에, 17절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제가 자발적으로 설교한다면, NRSV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갑자기 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용어가 있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보상이 있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위임을 받습니다. 좋아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죠? NIV가 더 잘 해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설교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문맥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의무를 다하면, 당신의 의무는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설교하고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설교한다면 보상을 받습니다. 자발적으로가 아니라면, 나는 단지 나에게 맡겨진 신뢰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무를 다한다면 보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무료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청중에게 어떤 것에 근거해서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내 권리를 온전히 활용하세요. 바울과의 매우, 매우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권리의 자발적인 쇠퇴가 보상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강력한 엘리트주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보상을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엘리트주의를 행사함으로써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것을 희생함으로써 보상을 받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그 지점까지 9장에서 나오는 많은 우연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학문적 측면에서, 누군가가 과제를 완수했다고 해서 A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해군을 졸업한 후 교사로 일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C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논문을 들고 온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A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후에 들어와서 제가 A를 받았어야 한다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왜 A를 받지 못했는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글썬요,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마감일이 지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글썬요, 수업에서 A를 받고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 추가로 독서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수업 시작 시에 의무를 규정했는데, 당신은 낙제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일을 해서 그것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의무의 문제, 책임의 이행,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제자리에 놓이도록 하는 성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즐겼습니다. A는 넘어서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A는 의무를 다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AB, 당신은 B를 받았고,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당신은 A를 받았고, 당신은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학생이신가요? 좋아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것 채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참아주세요.

학문적으로, 과제를 완수했다고 해서 A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최소한 B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B입니다. A는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많은 리소스. 더 나은 작문.

더 설득력 있는 구성. 더 많은 각주. 좋아요.

19절에서 23절.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의도적인 결정. 나는 자유롭고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지만, 나는 나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그의 권리를 부인한 것에 대한 후속 변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비록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주고받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음이 들린다면, 플로리다에서는 마당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약자에게, 나는 약해졌어요.

약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몇몇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며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24절에서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앞서 나갔네요. 법률을 읽고 생각하느라 조금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나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좋아요

124쪽. 그는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글썄요, 유대인들, 바울이 언급한 법은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한 법에는 오경의 613개의 기록된 계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장로들의 구두 확대는 나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법의 규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도덕적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23에 있는 바울의 서원은 흥미로운 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타락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바울은 문화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의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 유대 문화의 일부인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요구가 아니었지만, 바울이 유대인 청중과 동일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용 가능한 종교적 수행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의 도덕법은 특히 율법에 요약된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9:21의 이방인들. 미안, 눈을 떼야 겠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아졌어.

그는 20절에서처럼 여기에서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러한 율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규범적 유대교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구절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무를 입증하는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아무도 무법자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법은 고린도전서 11:1,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고 그가 주신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왕의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22-9:23의 믿는 자들. 바울의 자제에 대한 동기.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극하지 마십시오.

9:22에, 약자에게, 나는 약해졌다. 약자를 이기기 위해. 이제,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주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으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여 그 축복에 내가 참여하게 하소서. 아시다시피, 이 본문들을 작업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 약한 자에게 약한 자로서 약해지셨다는 이 구절도 생각합니다.

풀은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조정이 아니었지만, 조정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기 꽤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을 요구하지 않는, 도덕적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요구하고, 굴복해서 무언가를 따라가는 데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문제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과시하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었고, 나중에 그들은 깨어나서 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의 거대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원을 경작하는 비유를 사용하듯이, 팽이질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팽이질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숙박을 위해 당신을 비난할 만큼 성숙하면서도, 당신이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최종 목표를 위해 숙박을 한다는 감각을 갖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시골 교회의 목사였고, 우리는 교회에서 피크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일요일에 그것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젊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일요일이 그저 쉬는 날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했고, 일요일에는 공을 치거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두 세대가 흥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추구합니까? 그리고 일요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실, 그 젊은 교사와 변호사들은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신체 활동은 그들을 상쾌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심지어 그 연장자 그룹의 일원이었던 그들의 부모에게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양쪽의 숙박 시설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비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마침내 일요일에 피크닉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환경에서 그것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제력의 훈련, 24절에서 27절. 경주에서 모든 주자가 달리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주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메달을 받은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 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달려야 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 이스미아 경기가 있고,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왕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왕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적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공기를 두드리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몸을 때려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에 제 자신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논문에 A를 원하세요? 글썄요, 밤샘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정리하고 학기 내내 공부해서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고,

해내고, 제출하고,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못한 것을 받지만, 정확히 받을 만한 것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생님은 성적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얻습니다. 신은 어떤 의미에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폴은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서 이 보상을 얻었습니다. 글썄요, 그게 충분하지 않은 듯, 그는 우리를 10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출 것입니다.

저는 10장까지 다 하려고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섹션에 대한 세 번째 강의에서 10장과 양심의 개념을 결합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Gary Meadors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고린도전서 8.1-11.1,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9.